



고려 말 공민왕 재위기의 반야(般若) 복식 고증요소 고찰

- 불교법회 복식을 중심으로

A Study on Historical Research for Costume of Banya(般若) in King Gongmin's Period of Late Goryeo - Focused on the Buddhist Service Costume -

저자 (Authors)	최정 Jeong Choi
출처 (Source)	복식 65(6) , 2015.09, 112-132 (21 pag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65(6) , 2015.09, 112-132 (21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복식학회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676177
APA Style	최정 (2015). 고려 말 공민왕 재위기의 반야(般若) 복식 고증요소 고찰. 복식, 65(6), 112-132.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210.178.101.*** 2020/03/17 17:52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 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고려 말 공민왕 재위기의 반야(般若) 복식 고증요소 고찰

- 불교법회 복식을 중심으로 -

최 정

원광대학교 패션디자인산업학과 부교수

A Study on Historical Research for Costume of *Banya*(般若) in King *Gongmin's* Period of Late *Goryeo*

- Focused on the Buddhist Service Costume -

Jeong Choi

Associate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 Apparel Industry, Wonkwang University

(received date: 2015. 7. 20, revised date: 2015. 8. 6, accepted date: 2015. 8. 10)

ABSTRACT

Banya was a concubine slave of *Shindon*(辛屯) who was a powerful monk in late *Goryeo* Dynasty, as well as the mother of King *Woo*(禡王), a successor of King *Gongmin*(恭愍王). This study was undertaken to investigate the sources of costume for *Banya*. The study focused on the features of Buddhist service costume, street wear, and daywear for common women's costume during the prime age of the Buddhist culture. The study looked into Buddhist paintings, old documents, advanced research, and relics. There are three characteristics of historically investigated Buddhist service costume for *Banya*: *Dallyeongpo*(團領袍), long *Jeogori* made with black *Ra*(羅), and *Jeogori* with a long scarf. Skirt, under *Jeogori*, under skirt, *Cho*(縞), *Ra*(羅), *Neung*(綾), *Dan*(緞), patterned ramie(紋紵), and *Tapja*(塔子) were included in all Buddhist service costume. And, street wear consisted of Women's *Dapho*(婦人搭忽), long *Jeogori*, skirt, underwear and black *Ra* beil(蒙首). Daywear consisted of *Banbi*(半臂), long *Jeogori*, and skirt, underwear made with cheap fabric, *Ju*(綢), ramie, and imported cotton. Plumper hair, silver comb and *Biyeo*, lining of light pink-colored thin silk(小紅薄絹), bronze openworked ornament that fixed the outerwear's opening, bronze needle case, Sutra box and heated gemstone could be matched for the Buddhist service costume. Bronze and heated gemstone could be used for ornaments of street wear and daywear. The investigation of ornaments was carried on by referring to presentation of overseas collections. Considering the limitation of the study on *Goryeo* costume due to the lack of research material, future studies including much more relics in oversea collections needs to be undertaken.

Key words: *Banya*(반야), buddhist service costume(불교법회 복식), investigation sources(고증요소), king *Gongmin's* period(공민왕 재위기), overseas collections(해외 소장품)

이 논문은 2015학년도 원광대학교의 국내 우수논문 장려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됨
Corresponding author: Jeong Choi, email: jeongch@wku.ac.kr

I. 서론

반야(般若)는 고려 말의 세력가인 승려 신돈(辛旽)의 비첩(婢妾)이었고 공민왕(恭愍王)의 후계자인 우왕(禔王)의 모친이었던 여성이다. 그녀의 복식은 원(元) 세력 극복기의 주요 실존 여성인물의 복식으로서 의미있는 문화 콘텐츠 소재이다. 그러나 반야의 복식형태와 의료(衣料) 및 장신구와 관련된 선행연구 및 문화 콘텐츠는 찾아보기 어려운데, 고려 후기~말기의 혼란과 불교식 화장(火葬)의 영향으로 복식관련 기록과 자료의 상당수가 사라져 비(非) 귀족층 복식에 대한 자료가 매우 적기 때문에 볼 수 있다.

최근의 관련 선행연구로는 고려와 조선의 불복장에 대한 연구(Lee, 2005), 고려불화의 일반인 복식을 선(禪)과 관련지은 연구(Ok, Park, & Lee, 2008), 보광사 불복장 저고리의 특징을 고찰한 연구(Park, 2009), 공민왕의 복식정책을 기록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Chun & Ahn, 2010), 고려말 귀부인(貴婦人) 복식을 분석하여 인형용 복식과 장신구로 재현한 연구(Choi, 2011; Choi, 2013), 고려시대 장신구의 전반적인 특성 연구(Kim, 2012), 고려말 공신의 복식재현을 다룬 연구(Kim & Lee, 2012) 등이 있으나, 공민왕 재위기(A.D. 1351~1374)의 주요 실존인물이며 비 귀족층 여성이었던 반야의 복식 고증에 대한 연구는 아직 찾기 어렵다.

본 연구는 고려 후기~말기의 유물과 자료를 분석하고 해당시기의 복식문화가 적절하게 반영된 반야 복식의 고증요소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반야는 비첩이었으나 왕과 권력가의 관계자인 특수신분층이었으므로, 천민보다 상위계급인 여성의 복식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또한 공민왕 재위기의 반야는 안정된 재정기반을 가졌으나 그 이후 그녀의 생활환경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공민왕의 후원을 받던 시기의 반야의 복식 고증요소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연구방법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서인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에서 공민왕 재위기의 여성관련 복식문화를 살핀다. 둘째, 비

첩보다 높은 비 귀족층 여성에게 적합한 복식형태를 고려불화에서 추출하여 형태를 파악한다. 셋째, 최근의 관련 선행연구 및 공민왕 재위기 복식문화와 관련된 유물과 문헌에서 반야 복식 고증에 적합한 자료를 선별한다. 넷째, 고려의 장신구 유물을 분석하여 반야 복식에 적용할 수 있는 장신구의 특성을 추출한다. 마지막으로 복식과 장신구를 착용상황에 따라 성장, 외출복, 평상복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이에 따른 고증요소를 제시한다.

고려의 장신구 유물은 상당수가 해외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부족한 국내 자료를 보완하고 해외소장 유물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미국 보스턴 박물관(Museum of Fine Arts in Boston)과 스미소니언 박물관(Smithsonian), 독일 쾰른 동아시아 박물관(Museum of East Asian Art in Cologne), 프랑스 국립 기메 동양박물관(The Guimet National Museum of Asian Arts) 등에 소장된 고려유물을 중심자료로 선택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반야의 신분 및 복식 고증요소 분석 시의 유의점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공민왕 3에 의하면, 공민왕은 재위 17년(1368년) 9월에 신돈의 첩 반야에게 매달 쌀 30석을 하사하여(始賜辛旽妾般若 米月三十碩)(Kim, 2004, p. 332), 반야에게 안정된 재정기반과 왕의 비호를 받는 여성이라는 상징성을 부여하였다. 신돈을 경계하여 처형한 1371년에도 공민왕은 “...내가 일찍이 신돈의 집에서 시비와 관계하여 아들(牟尼奴)을 낳았으니 잘 보호하라.”라고 명하였고(Kim, 2004, p. 361), 7월에는 우(禔)라는 이름을 내려주었다(Kim, 2004, pp. 374-376). 그러나 공양왕(恭讓王) 1년(1389년)에 왕이 우왕과 창왕을 처형한 후 태조에게 고하는 내용을 보면 “공민왕이 아들을 두지 못하고 세상을 뜨니 적신(賊臣) 이인임(李仁任)이 정치를 마음대로 하고자 신돈의 비첩 반야가 낳은 우를 왕으로 삼았다...그 생모인 반야를 죽여



<Fig. 1> Costume of *Banya* in <Shindan>. (Lee, 2006)



<Fig. 2> Costume of *Banya* in <Daefungsu>(1). (SBS TV, n.d.)



<Fig. 3> Costume of *Banya* in <Daefungsu>(2). (Starnews, 2012)

입을 막으니 사평문(司平門)이 무너졌다.”고 한다(Kim, 2004, p. 677-681). 반야는 ‘공민왕의 아들’의 생모로 공식인정을 받지 못한 채 사망했고, 우왕의 혈통에도 큰 논란이 있었던 것이다.

이상에 의하면 반야는 비첩이었으나 공민왕 재위 기에는 왕의 배려로 안정된 소득을 얻은 여성이었다. 그러나 반야가 쌀 30석 외에 왕실의 일원으로 인정 받았거나 대외적으로 귀부인의 복식을 착용했던 증거는 없다. 그러므로 반야의 복식을 고증할 때는 비귀족층이면서 일정한 재력을 지닌 여성의 복식을 염두에 두고 일반적인 비첩의 복식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공민왕 재위기의 복식생활을 최대한 반영해야 할 것이다.

반야의 복식은 MBC의 <신돈>(2005), SBS의 <대풍수>(2012) 등의 대중 미디어(media)에서 수차례 제작되었다. 그러나 대중 미디어의 반야 복식은 당시의 복식생활보다 캐릭터의 개성표현을 중시한 경우가 많은데, 부정확한 이미지를 대중에게 전달할 수도 있어 주의를 요한다. <신돈>의 반야 복식(<Fig. 1>)에서는 직선적이며 풍성한 고려 말 복식의 특성이 잘 나타나지만, 세부에 현대적인 요소가 가미되었다. <대풍수>의 반야 복식을 보면 <Fig. 2>, <Fig. 3>처럼 몸을 조이거나 거들치마를 이용하여 조선 중기의 기녀를 연상케 하는 퓨전 이미지와 현대적인 재료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야는 불교 중흥기의 왕과 승려의 관계자이자 비첩이므로, 그녀의 복식을 고증하려면 불교관련 자료를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불교법회를 묘사한 고려 불화에서 비귀족층 또는 비교적 부유한 일반인으로 판단되는 여성의 복식특성을 관찰하고, 여기에 공민왕 재위기 전후의 복식문화를 반영한 후, 불교법회 성장(盛裝) 및 외출복과 평상복으로 고증요소를 나누어 제시하여 연구결과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한다.

2. 국가 공식 역사문헌에 기록된 공민왕 재위기의 복식생활

<Table 1>는 반야 복식과 관련된 고려 공민왕 재위기의 기록을 정리한 것이다. 『고려사』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편년체인 『고려사절요』를 참고하였다. 공민왕 재위 초기에는 풍수지리와 관련된 복식 규정 및 원에 대한 문지포 조공, 중기에는 신돈과 기현의 악행과 관련된 복식, 후기에는 복식의 자주성 회복에 대한 사항이 나타난다.

<Table 1>에 의하면 공민왕 6년(1357년)에 우필홍이 풍수에 맞추어 여복(女服)으로 흑라(黑羅)을 입게 하자는 상소를 올리자 왕은 이를 따랐다. 『성호전집(星湖全集)』 8 해동악부(海東樂府) 석백저(榻白

<Table 1> The Costume Culture in the King *Gongmin*'s Period from 『*Goryeosa*』 and 『*Goryeosa-jeolyo*』

Sort	The Costume Culture of King <i>Gongmin</i> 's period	Note
『 <i>Goryeosa</i> 』 38, Sega[世家] 38	In April and May, <i>Yuan</i> demanded patterned ramie(紋苧布). (A.D. 1354, king <i>Gongmin</i> 's 3 rd year)	Special fabric product of <i>Goryeo</i> .
『 <i>Goryeosa</i> 』 38, Sega[世家] 38	In July, the emperor of <i>Yuan</i> dispensed <i>Goryeo</i> from offering patterned ramie tribute(貢紋苧布). (A.D. 1355, king <i>Gongmin</i> 's 4 th year)	
『 <i>Goryeosa-jeolyo</i> 』 26, king <i>Gongmin</i> 1	<i>Sachunsogam</i> (司天少監) <i>Wopilheung</i> (于必興) appealed, "...from now, please let officers wear black clothing(黑衣) and blue hat(青笠), monks wear black hood(黑巾) and big crown(大冠), women wear black <i>Ra</i> (黑羅)...." and king carried out it. (A.D. 1357, king <i>Gongmin</i> 's 6 th year)	Costume policy of 'Black and blue: the colors of <i>Goryeo</i> ' was enacted with <i>feng-shui</i> (風水).
『 <i>Goryeosa</i> 』 132, series of biographies 45, treason 6	Costume of <i>Shindon</i> (辛旽) was very similar to king's, so observer couldn't distinguish between king and Sin-don.	<i>Shindon</i> 's costume of mutiny in polo(擊毬) arena stand.
『 <i>Goryeosa-jeolyo</i> 』 28, king <i>Gongmin</i> 3	In October, wife of <i>Gihyeon</i> (奇顯) said, "you can't wear over gown(表衣), and 'no servant(從者)', because our guest room(別室) is too small." therefore, ladies and mistress enter guest room alone without their overgown but with only single jacket(短衫) and bribe....(A.D. 1367, king <i>Gongmin</i> 's 16 th year)	Women's fall/winter costume.
『 <i>Goryeosa</i> 』 42, Sega[世家] 42	In May, the emperor of <i>Ming</i> sent <i>Sangbosaseong</i> (尙寶司丞) <i>Sealsa</i> (契斯) and gave <i>Gomyung</i> (王命) to king.... "....I permit that every ceremony(儀), law(制), costume(服) of <i>Goryeo</i> can be restored to original custom of <i>Goryeo</i> (本俗)." (A.D. 1370, king <i>Gongmin</i> 's 19 th year)	Restoration of costume custom of old <i>Goryeo</i> .

紵)를 보면 충렬왕(忠烈王) 1년(1275년)에 동방(東方)은 오행에서 목(木)의 자리이니 청색을 숭상해야 한다고 하여 백저의(白紵衣)를 금지하기도 했다(Lee, 2011, p. 232). 공민왕의 '흑라 여복' 제도가 얼마나 지속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고려 말에 풍수를 중시한 의료가 권장되었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

격구장에서 왕과 신돈의 복식이 비슷했던 사실은 신돈의 복식에 이미 하극상에 달했음을 알려주며, 반야의 복식도 본래의 신분보다 사치스러웠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간접적인 근거이다. 공민왕 16년(1367년)에는 신돈의 도당인 기현(奇顯)의 처가 뇌물을 가져온 부인들에게 별실이 좁다고 하며 표의를 벗고 단삼만 입게 했는데, 당시의 여성용 겹옷이 상당히 넓었으며 받침옷은 단삼으로 불리웠음을 알 수 있다(Choi, 2011). 『해동역사(海東譯史)』 38 교빙지(交聘志) 6 상국사(上國使) 2는 『엄주별집(兪州別集)』을 인용하여 "홍무 2년(1369년)....고려왕 왕전에 게 금수직기(錦繡織綺) 10필....국상(國相) 신돈(辛旽)과 시중(侍中) 이춘부(李春富), 이인임(李仁任)에게

문기사라(文綺紗羅) 12필을 하사하였다."고 전한다(Han, 2001, p. 126). 신돈이 국상으로서 받은 문기사라는 왕의 예물에 다소 못미치는 고가의 직물예물로 분류할 수 있다.

신돈이 처형되기 1년 전인 공민왕 19년(1370년)에 명 황제는 공식적으로 고려의 의식과 복식을 본래 풍습대로 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원의 간섭을 벗어나려던 공민왕의 성향을 고려하면 반야의 복식에는 원의 영향이 배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원과 고려의 스타일이 조합된 의복 및 고려 말 중국에서 수입된 직물과 염료 등은 신중하게 선별하여 복식고증에 적용하도록 한다.

『고려사』 72 지(志) 26 여복(與服) 1은 공민왕이 재위 21년(1372년)에 "상홀(象笏), 홍정(紅鞞), 조정(皂鞞), 초라조복(綃羅朝服)은 모두 본국의 산물이 아니므로 이후에는 시신(侍臣) 외의 동서반(東西班) 5품 이하는 목홀, 각대(角帶), 주저조복(紵紵朝服)을 입도록" 했다고 한다(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NIKH], n.d.). 그러나 Joe(1992)와 Park(2002)

에 의하면 초, 라는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생산되었고 상급층에서는 많이 사용하였으므로(Park, 2013, p. 67.), 초, 라는 격식있는 예복의 재료로, 주, 저는 평상예복의 재료로 사용하여 구분을 둘 수 있다.

Ⅲ. 반야 복식 고증과 관련된 의복과 의료 고찰

먼저 비교적 명확한 착장상태를 볼 수 있는 고려 불화에서 반야가 착용하기에 무리가 없을 복식을 관찰하고, 고려 말 일반 여성복식과 관련된 유물과 기록을 분석하였다.

1. 고려불화에 나타난 일반여성의 불교법회 복식의 특징

법회(法會)는 불사(佛事), 재회(齋會), 법요(法要), 법사(法事)라고도 하며, 불법을 강설하거나 공양과 관계된 행사를 거행하는 집회를 가리킨다(Lee, 2007, p. 563). 상당수의 현존 고려불화는 공민왕 재위기 및 바로 이전 시기에 법회를 소재로 하여 제작되었고, 여성들의 복식은 왕족을 제외하면 크게 남성 공양자의 시녀, 여성 공양인과 여성 불자의 의복으로

나뉜다. 이를 차례로 살펴보도록 한다.

반야는 본래 비첩이며 우왕의 친모로 공식 인정을 받지 못했고 우왕의 혈통 자체에도 논란이 많아, 『고려사절요』 제 29권에 의하면 1373년 3월 공민왕이 모니노(禍)를 후사로 삼으려 하자 황후는 내키지 않아하며 이를 반대하였다고 한다(Kim, 2004, pp. 373-374). 그러므로 공민왕의 물적 후원을 제외하면 반야가 왕궁을 출입하며 시녀 복식을 착용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되나, 왕족이 아닌 여성 중 상위층의 복식 형태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서 <Table 2>와 같이 시녀의 복식을 정리하여 분석하였다.

국립중앙박물관(National Museum of Korea[NMK])의 <시왕도(十王圖) 제팔평등왕(第八平等王)>와 일본 신노인(親王院)에 소장된 <미륵하생경변상도(彌勒下生經變相圖)>의 시녀들은 각각 짙은 색의 선(襪)이 부착된 담홍색, 청색, 녹색, 미색의 활수포를 입었다. 모두 포보다 소매가 반 이상 좁은 백색 저고리를 착용했으며, 포와 선은 무문(無紋)이거나 금직(金織)이다. <Fig. 5>를 제외하면 왕 또는 남성 공양자의 바로 옆 시녀들(<Fig. 4, 6, 7>)은 폐슬과 후수 형태의 홍색 요군(腰裙)을 덧입었고 활수포의 소매는 종아리까지 내려오는데, 이는 일반여성보다는 왕과 남성 귀족의 측근 시녀의 행사용 성장에 알맞은 차림이라

<Table 2> Maid of Honor in Buddhist Painting of Late Goryeo

<p><Fig. 4> Maid of Honor(1) <Siwang-do(The 8th Peongdeung - wang)>, Private Collection, New York (NMK, 2010, p. 174)</p>	<p><Fig. 5> Maid of Honor(2) <Mireuk-hasaengkyonug-beonsang-do>, Sinnoin (Kikutake & Chung (Ed.), 1997, p. 139)</p>	<p><Fig. 6> Maid of Honor(3) <Mireuk-hasaengkyonug-beonsang-do>, Sinnoin (Kikutake & Chung (Ed.), 1997, p. 139)</p>	<p><Fig. 7> Maid of Honor(4) <Mireuk-hasaengkyonug-beonsang-do>, Sinnoin (Kikutake & Chung (Ed.), 1997, p. 139)</p>

<Table 3> Ordinary Female Prayer and Dedicator in Buddhist Painting and Mural Painting of Late *Goryeo*

<p><Fig. 8> Female Dedicator: <Suwol-kwaneum-do>, MMA (Kikutake & Chung (Ed.), 1997, p. 188)</p>	<p><Fig. 9> Mural Tomb of <i>Park-ik</i> in <i>Milyang</i>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n.d.)</p>		
<p><Fig. 10> Female Dedicator: <Suwol-kwaneum-do>, <i>Daidokuji</i> (Kikutake & Chung (Ed.), 1997, p. 156)</p>	<p><Fig. 11> Female in the Crowd: <Gwankyong-sibyuk-gwanbeonsang-do>, <i>Saihukuji</i> (Kikutake & Chung (Ed.), 1997, p. 294)</p>	<p><Fig. 12> Female on the Lotus Pedestal(1): <Gwankyong-sibyuk-gwanbeonsang-do>, <i>Chionji</i> (Kikutake & Chung (Ed.), 1997, p. 296)</p>	
<p><Fig. 13> Female on the Lotus Pedestal(2): <Gwankyong-sibyuk-gwanbeonsang-do>, <i>Chionji</i> (Kikutake & Chung (Ed.), 1997, p. 295)</p>	<p><Fig. 14> Female on the Lotus Pedestal(3): <Gwankyong-sibyuk-gwanbeonsang-do>, <i>Chionji</i> (Kikutake & Chung (Ed.), 1997, p. 296)</p>	<p><Fig. 15> Female on the Lotus Pedestal(4): <Gwankyong-sibyuk-gwanbeonsang-do>, <i>Chionji</i> (Kikutake & Chung (Ed.), 1997, p. 295)</p>	<p><Fig. 16> Female into Samsara: <Siwang-do>(The 10th <i>Odo-jeonryun-wang</i>), Private Collection, New York (NMK, 2010, p. 175)</p>

고 할 수 있다. 시녀의 머리모양은 세부차이를 제외하면 목덜미에서 나뉜 쌍계(雙髻) 형태로, 대형 고계

(高髻)를 올린 왕비와 차이점을 보인다. 그러나 아래에 제시된 <Table 3>의 불화들에 더 작은 고계를 올

린 부인들도 나타나므로, 쌍계와 고계는 미혼녀와 기혼녀, 또는 젊은 여성과 중년 여성을 표시하는 수단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다음은 <Table 3>의 여성 공양인과 불자의 복식으로, 반야가 법회와 일상에서 착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의복들이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의 <수월관음도(水月觀音圖)>에 묘사된 왼쪽 여성 공양인(<Fig. 8>)은 탑자 원문(圓紋)의 흑녹색 장저고리를 착용했다. 행렬 앞쪽에 긴장식 활수포를 입은 여성이 있으므로 <Fig. 8>의 여성은 오른쪽 여성과 함께 귀부인의 여시중이거나 비 귀족층 공양자인 것으로 여겨진다. 일본 다이도쿠지(大徳寺)의 <수월관음도>(<Fig. 10>)도 유사한 구도이지만, 오른쪽 여성의 소매에 선이 없고 덧자락이 있으며 홍색 치마에 뚜렷한 화문이 보인다.

고려 말 문신인 박익(朴翊: 1332~1398)의 묘의 북서장벽과 남동장벽에 묘사된 <Fig. 9>의 여성들도 시녀로 보이지만, <Fig. 8>,<Fig. 10>과 유사한 장저고리를 착용하였다.

저고리의 길이는 허벅지 부근이며 소매가 좁으나 품은 넓고 이중깃과 단독깃이 모두 나타난다. 치마는 자연스러운 실루엣이며 치마끈은 앞쪽으로 묶었고 문양은 보이지 않는다.

일본 사이후쿠지(西福寺)에 소장된 <관경십육관변상도(觀經十六觀變相圖)>의 여성 불자(<Fig. 11>)는 비대칭 추마계를 하고 백색 저고리와 황색 단령포 위에 대를 착용하였다. 이 머리는 11세기의 『고려도경(高麗圖經)』 천사(賤使)에도 기록되었는데, ‘부인의 계(髻)는 귀천이 모두 같아, 오른쪽 어깨에 늘이고 나머지 머리는 아래로 하여 강라(絳羅)로 묶고 소잠(小簪)을 꽂는다...’라고 한다(Seo, 2005, p. 260). 이 여성 불자는 따로 마련된 자리가 아닌 승려와 남성군중 속에 묘사되어서 일반여성이거나 유녀(遊女)로 추정된다.

일본 치온지(知恩院)에 소장된 <관경십육관변상도(觀經十六觀變相圖)>에서 하품중생(下品中生) 부분의 여성 불자(1)<(<Fig. 12>)는 길게 늘인 쌍계형 머리에 소형 탑자문이 있는 담청색 활수포와 좁은 백색 저고리를 입었고, 그 아래의 연화에 싸인 여성은

홍색 상의를 착용하였다. 여성 불자(1)은 연화좌대에서 설법을 듣고 있고 <Table 2>의 시녀들처럼 활수포를 착용했으므로 비교적 신분이 높은 여성으로 보이지만, 반야처럼 권력자의 비호를 받는 비 귀족층 여성이 이런 복식을 착용했을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 유사한 차림새는 <Fig. 13>의 여성 불자(2)에서도 보이는데, 백색 대와 홍색 금직 치마를 착용했다.

같은 불화의 중앙 연화좌대에 앉은 여성 불자(3)<(<Fig. 14>)은 표(袂) 형태의 녹색 천을 걸치고 탑자 원문을 넣은 직배래 홍색 저고리와 백색 적삼, 탑자 화문의 청색 치마를 입었다. 깃은 이중깃 또는 이중선으로 여겨진다. 머리에 작은 화관을 썼으나 포를 입지 않아 차림새는 비교적 간소하며, 반야의 불교법회 성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차림이다. <Fig. 15>의 여성 불자(4)도 치마 색과 화관의 형태가 다르지만 <Fig. 14>과 유사한 차림새이다.

<Fig. 16>은 <시왕도(十王圖) 제십오도전륜왕(第十五道轉輪王)>에 묘사된 윤회에 들어간 여성으로, 소매가 좁은 갈색 저고리 위에 홍색 치마를 올려 입었고 머리는 쌍계 형태이다. 장식이 없어 일반여성의 평상복으로 생각되며, 이는 반야의 평상복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 의복들은 고려 후기~말기의 비 귀족층 여성복식 참고자료로서 의미를 가진다. 공민왕 재위기 초반에 여복 재료로 권장된 흑라, 또는 주, 저 평직으로 이러한 형태의 장저고리와 치마를 제작하면 반야와 같은 위치의 여성이 착용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Table 4>는 고려불화에서 심판을 받는 여성들의 차림새이다. <Fig. 17>의 여성(1)은 홍색 치마 밑에 흰 속바지를, <Fig. 18>의 여성(2)는 가슴 밑까지 오는 흰 치마를, <Fig. 19>의 여성(3)은 풍성한 흰 바지의 자락을 걷어올려 입었으며, 이를 통해 고려 말 여성 내의(內衣) 중 하의의 형태를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위의 불화들과 벽화에서는 <고려도경>에 언급된 쓰개인 통칭 몽수(蒙首)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조선의 너울이 존재하므로 고려 말 공민왕 재위기에 몽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외출

<Table 5> Punished Female in Buddhist Painting of Late *Goryeo*

<p><Fig. 17> Punished Female(1) <Siwang-do(The 5th Yeomra-wang)>, Private Collection, New York (NMK, 2010, p. 173)</p>	<p><Fig. 18> Punished Female(2) <Siwang-do(The 10th Odo-jeonryun-wang)>, Private Collection, New York (NMK, 2010, p. 175)</p>	<p><Fig. 19> Punished Female(3) <Siwang-do(The 1st Jin-gwang-wang)>, Harvard Art Museum, Arthur M. Sackler Museum (NMK, 2010, p. 170)</p>

시에 착용했어도 불교법회에서는 벗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2. 반야 복식과 관련된 복식유물

현존하는 소수의 고려 복식유물 중 가장 상태가 양호한 것은 재력가들이 공양한 불복장 유물이다. 공양자의 이름과 발원문을 기록한 것도 있고 등솔을 뜯어 한쪽만 공양하거나 소매를 분리한 것도 있어 새로 지은 옷이 아닌 평상시 착용했던 옷일 가능성이 높는데(Lee, 2005), 실제로 반야가 착용했을 복식의 형태를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유물들이다. 그러나 공양자의 신분과 성별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도 많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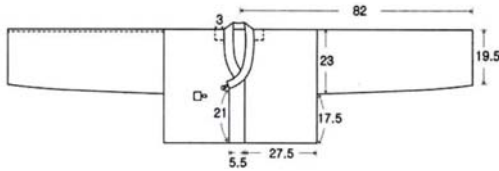
보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에서 발견된 고려 저고리(<Fig. 20>)는 공민왕 재위기보다 시기가 앞선 유물이지만 1326년 해인사의 저고리와도 거의 유사한 형태여서(Park, 2009), 고려 말의 보편적인 상의(上衣) 형태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여성용으로 추정되는 소색(素色) 사경교라로 제작된 홀저고리이며 내어달린 목판깃이 달렸고, 직배래의 통수에 결마기가 없으며 앞길이 40cm, 품 54cm, 화장 82cm의 비교적 작은 저고리이다(Park, 2009, p. 2). Park(2009)는 한쪽 어깨에만 봉제선이 있는 점을 들어 이를 적삼으로 추정했는데, 이 적삼의 형태는 더 넓고 길었을 겹저

고리의 형태를 추정할 근거가 된다. 또한 고려 말의 적삼은 비대칭 봉제선이 생기도록 제작하여 공양되는 경우도 있었음과, 고려 말 여성용 적삼에 사경교라와 같은 고급직물이 쓰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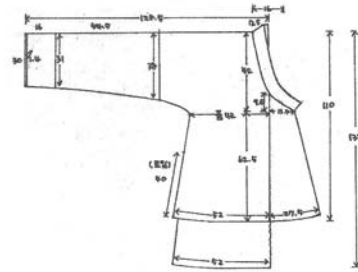
온양박물관에 소장된 길이 133cm의 자의(紫衣)(<Fig. 21>)와 길이 110cm의 저고리(<Fig. 22>)는 소매끝이 다소 좁은 직배래이며 화장은 각각 125.5cm, 142cm로 매우 길다(Kim, 2000, pp. 79-82). 해인사의 저고리 중 좌우가 갖추어지고 양쪽에 고름이 있어 형태가 가장 명확한 유물(<Fig. 23>)의 소매도 끝이 좁은 직배래이다. 해인사 저고리들의 기본형태는 앞의 이은 자국 등 세부를 제외하면 서로 유사하나, 길이는 각각 84, 66, 65cm, 화장은 90cm 전후이다(Kim, 2000, pp. 83-86). Kim(2000)은 이 고려 저고리들이 모두 허리선을 덮는 길이이며 옆트임이 있음을 밝혔다.

<Fig. 24>는 위를 토대로 재구성한 흑라 여복의 형태와 대략의 치수이다. 이처럼 고려 말 상의의 대략적인 형태는 유물로 추정할 수 있으나, 치마 또는 반비와 함께 발견된 저고리와 포 유물은 드물고 파손된 유물도 많아 실물로 한 벌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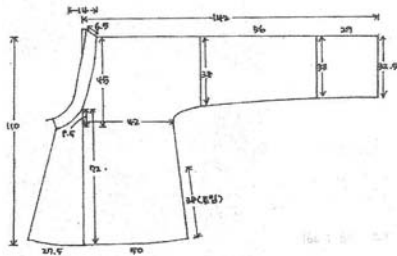
참고로 <Fig. 25>는 짧은 반비인 견(絹) 단수삼(短袖衫, 기(綺) 직배래 저고리, 견(絹) 치마가 갖추어진 명(明)의 유물로, 형태를 보면 고려 궁녀들의 고려양(高麗樣)이 원 복식과 혼합되어 계승된 것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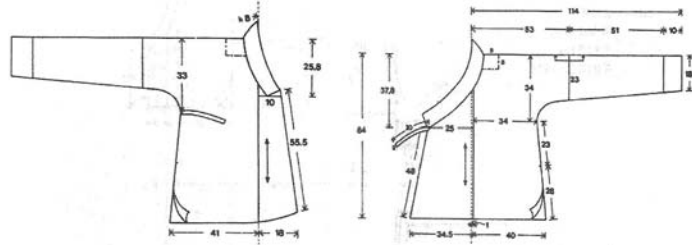
<Fig. 20> Illustration of *Jeogori* in Bogwang Temple (Park, 2009, p.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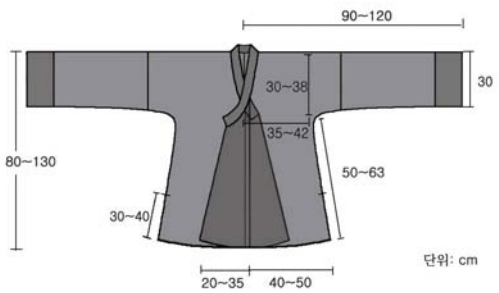
<Fig. 21> Illustration of Purple Jacket(紫衣) in *Onyang Folk Museum* (Kim, 2000, p. 80)



<Fig. 22> Illustration of *Jeogori* in *Onyang Folk Museum* (Kim, 2000, p. 81)



<Fig. 23> Illustration of *Jeogori* in *Haerin Temple* (Kim, 2000, p. 82)



<Fig. 24> Female's *Jeogori* with Black *Ra* (Illustration by author)



<Fig. 25> Half Sleeved & Long Sleeved Jacket with Skirt, *Ming* (Musée des Arts asiatiques & Musée national de la Soie, 2005, pp. 68-69)

로 추정된다. 이는 고려 말 여성들의 보편적인 복식 조합이며, 소박한 재질로 제작하면 반야의 평상복으로도 적합한 의복이 될 것이다.

3. 회화문헌에 나타난 반야 복식 관련 의료와 복식생활

공민왕 재위기의 부족한 기록을 보완하기 위해,

고려 말을 배경으로 한 회화문헌을 중심으로 반야의 복식고증에 참고할 만한 의료와 복식생활을 고찰하였다.

1) 『박통사언해(朴通事諺解)』에 나타난 반야 복식 관련 의료와 복식생활

<Table 5>는 중국어 원문 밑에 우리말 주해가 첨부된 1677년 편찬본 『박통사언해』의 역주본(Wang, Yu & Choi, 2012)에서 반야 복식에 참고할 수 있는 의료를 정리한 것이다. 육홍색 부인 답호의 걸감을 도홍색으로 개염(改染)해 달라는 대목을 보면, 당시의 부인 답호는 고급 직물로 짓고 주로 홍색 계열로 다시 염색하며 아껴 입었던 여성정장에 속할 것이다. '정장 입습'을 짓는 데에는 통수술란, 화봉문 모시, 직금이 쓰였으나, 의복의 종류 및 여러 명이 바느질에 동원된 상황을 보면 상류층의 정장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다른 대목을 보면 모시베와 검은 칠릭용 베에 대한 기록이 있고, 손님이 상인에게 아청(鴉靑)과 총백(蔥白) 바탕의 사계화(四季

花) 문양 단자를 요구했으며, 한 아들이 부모의 의복재료로 보낸 천은 수갈색 단, 금다갈색 단, 남색 능이어서, 당시에 시판되던 화문 직물의 형식과 일반인의 의료로 선호되던 직물의 종류를 단편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앞서 언급된 보광사 불복장 적삼은 솟매듭과 암매듭 단추로 여미도록 제작되었는데(Park, 2009, p. 3), <Table 5>를 보면 큰 여밈부속(紐子)을 우습다고 생각하여 작은 여밈부속을 선호했던 사실이 드러난다. 당시의 미의식도 반영되었겠지만, 속에 입은 적삼에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겉옷에 작은 여밈부속이 필요했을 것이다.

2) 『노걸대』에 나타난 반야 복식 관련 의료와 복식생활

『노걸대』는 1280년경에 중국 대도에서 고려상인들이 중국상인과 동행한다는 설정으로 쓰여졌다(Jeong, 2004). <Table 6>은 『노걸대』에서 고려상인이 거래한 일반남녀의 복식을 정리한 것이다. 최세진이 산개본

<Table 5> The Ordinary People's Costume Culture in 『Parktongsa-unhae』

Source	Costume Culture	Note
『Parktongsa-unhae』1, 25/25	white ramie(白毛施布) 10 bolts, yellow ramie(黄毛施布) 5bolts, black ramie for <i>Chulrik</i> (黑帖裏布) 5bolts.	Gift from receiver's wife.
『Parktongsa-unhae』2, 42/3	meat-red upper fabric for <i>Dapho</i> of women (肉紅婦人搭忽表兒).	Redyeing(改染) to peach-red color(桃紅).
『Parktongsa-unhae』2, 60/21	lapis lazul brocade from <i>Namgyeong</i> (南京鴉靑段子). white green colored <i>Tongsu-seullan</i> brocade (葱白素通袖膝欄段子).	Brocade with pattern of four season flowers (四季花).
『Parktongsa-unhae』2, 73/34	vivid green fabric with embroidery of <i>Tongsu-seullan</i> (明綠通袖膝欄綉的): <i>Chulrik</i> (帖裏). deep meat-red fine ramie with flower & phoenix pattern(深肉紅界地穿花鳳紵絲): <i>Bigab</i> (比甲). cockscomb-red fabric with embroidery of <i>Sahwa</i> (鷄冠紅綉四花): <i>Dapho</i> (搭護). lapis lazul golden brocade with dragon & python pattern(鴉靑織金大蟒龍): outer(上盖). "Too big strap is unnecessary, Use smaller thing(紐子不要底似大 大時看的蠢塗了.)"	Fabrics for making one set of clothing. <i>Garyeo</i> people preferred modest sized strap.
『Parktongsa-unhae』3, 84/7	water-brown brocade(水褐段匹): fabric for father's clothes. golden tea-brown brocade(金色茶褐段子) and navy <i>Jangneung</i> (藍長綾): fabric for father and mother's clothes.	Son sent this fabrics with inner(壹裏).

(刪改本)을 번역할 때 구본(舊本)이라고 밝힌 자료(Jeong, 2004, p. 15)의 번역본을 참고하였다. 고려 말의 비 귀족층 여성복식에 실제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증시하여, 고려상인이 직접 팔거나 구입한 직물과 복식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보면 고려 말에 박견을 소홍으로 염색해 안감으로 썼으며 능자는 주로 아청과 소홍으로 물들었고, 거친 목면, 혼금단자, 초금단자를 수입했음을 알 수 있다. 고려 상인은 어란(魚子)처럼 고른 조직의 고급 포(布)와 함께 거친 저급 포도 거래했으며, 고려 직물 중에는 폭이 좁아 중국 의복을 만들기 어려운 직물도 있었다.

이를 반야의 의복에 적용하면, 소홍색 박견 안감과 아청색과 소홍색 능자 및 비교적 저렴한 금직물을 사용한 성장(盛裝), 수입 목면 직물로 지은 평상복, 여러 개의 이음선이 있는 소매 부분 등을 추론할 수 있다. 문익점(文益漸)이 원에서 면화(棉花) 씨를 도입한 시기도 공민왕 재위기였으나 재배와 보급에 시간이 걸렸으므로, 국산 목면은 반야의 복식에 비중있게 사용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 부분적으로 참고하였다.

이 시기의 금직물은 불복장과 왕실예물 등에 제한되어 사용되었다(Choi, 2014). 그러나 초금단자를 저급 금(金)으로 제작된 금직물로 해석하면(Jeong, 2004), 일반여성의 복식 일부에 장식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아울러 『계림유사(鷄林類事)』에 “고려에는 사잠(絲蠶)이 적어 라(羅) 1필당 은 10냥

이므로 대부분 마포(麻布)와 저포(紵布)를 입는다.”라 기록되었으므로(Han, 1998, p. 92), 반야 복식에도 이를 반영하였다.

4. 반야 복식과 관련된 머리모양과 장신구 유물 분석

고려불화와 박익 묘 벽화에서 비 귀족층으로 판단되는 여성의 머리모양을 고찰하고, 고문헌 및 해외 소장품 중에서 반야의 장신구로 적합한 특성을 가진 개체를 분석하였다.

『고려사』 28 세가 28에 의하면 충렬왕 3년(1277년)에 다루가치가 고려에서 역민(役民) 11446명을 채금(採金)에 동원했으나 70일 동안 겨우 금 7냥 9푼을 얻었다고 한다(Classical laboratory of Dong-a University[CLDU], 1967, p. 16). 반면 『고려사』 28 열전 9 반역 4를 보면 은상서(銀尙書) 이현(李峴)이 부정축재로 은채(銀釵)를 한 상자 가득 모았다고 기록되어(Jeong, 2006, p. 248), 고려 말에 금보다 은 장신구가 빈번히 쓰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현존하는 고려 장신구 유물은 주로 청동, 금동, 금속제이며, 반야의 일상적인 장신구 재료로는 이것이 더욱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1) 머리형과 머리장식

고려불화와 박익 묘 벽화에 묘사된 비 귀족층 추

<Table 6> The Ordinary People's Costume Culture in 『Nogeoldae』

Source	Costume Culture	Note
『Nogeoldae』10	“Thin silk(薄絹) is 17 <i>Nyang</i> per 1 bolt, be used as lining(裏絹) after dyeing it pinkish red(小紅).” “Twilled fabrics(綾子) is 25 <i>Nyang</i> per 1 bolt, it is dyed lapis lazul(鴉青) and pinkish red(小紅).”	<i>Goryeo</i> merchant's purchase.
『Nogeoldae』99	“That fabric(一箇布) is good: weft and warp are same, clean and regular as like fish eggs(魚子兒也). But this fabric is bad: weft and warp are not same, and it has loose weave.” “Narrow fabric(布) is short to make clothing(衣裳).”	Mention of Chinese merchant about fabrics of <i>Goryeo</i> merchant.
『Nogeoldae』104	“I'll buy thick cotton(纒木棉) 100 bolt, <i>Honguem-so-danja</i> (渾金素段子) 100 bolt, <i>Choguem-danja</i> (草金段子) 100 bolt.”	<i>Goryeo</i> merchant's purchase for sale in <i>Goryeo</i> .

정 여성들의 머리형은 쌍계, 정수리의 고계, 세 갈래의 계, 추마계, 길게 늘인 쌍계로 나뉜다. 공민왕 재위기의 머리 제작 방식은 확실치 않으나, 『고려사』 28 열전 9 반역 2에 의하면 동북면병마사 조원정(曹元正)이 장발인 자만 보면 머리카락을 잘라 체(髻)를 만들었는데 말 두 필 분량이었다고 하므로(Jeong, 2006, p. 452.) 고려 말에 가체가 유행하며 귀하게 취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박통사언해』 상 제 21/21에 ‘...머리를 풀어 빗질을 하되, 먼저 희비자(稀篋子)로 빗고 도침(挑針)을 꽃은 후 밀적비자(密的篋子)로 잘 빗어 비듬을 깨끗하게 제거하게.’ 라는 대목이 있다(Wang et al., p. 95). 이를 보면 먼저 굵은 빗으로 엉킴을 풀고 형태를 만들어 작은 동곳 류로 고정한 후, 불순물을 떨구는 참빗을 사용한 듯 하다.

〈Fig. 26〉는 켈른 동아시아 박물관 소장품인 반원형 고려 은제장신구(No. C27.6)이며, 양각된 절지화(折枝花)와 양옆에 날개를 편 공작(孔雀)은 통일신라 이후 이어진 형식의 문양이다(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NRICH], 2007-a, p. 230). 여성용 장식빗의 형태이나 빗살이 없어 부장(副葬)용으로 추정된다(NRICH, 2007, p. 230). 은제이며 세공이 비교적 정교하여 부유한 여성을 위한 물건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유물에 빗살을 추가하면 쌀 30석을 매달 제공받던 시기의 반야의 성장용 머리장식으로 응용할 수 있다고 여겨지며, 같은 형태의 동제 빗도 일상용으로



〈Fig. 26〉 Comb-shaped Silver Ornament, Goryeo (NRICH, 2007-a, p. 95)



〈Fig. 27〉 Bronze Binyeo, Goryeo (NRICH, 2007-b, p. 123)

제시할 수 있다. 참고로 Kouymjian(2006)은 13세기의 근동(近東) 예술에 유행했던 날아가는 새 문양을 몽골풍의 일환으로 보았다.

일본 도쿄 국립박물관(Tokyo National Museum)의 오구라(小倉) 컬렉션 중에 두 갈래의 꽃가지 형태인 고려 비녀(〈Fig. 27〉)는 청동제여서 일반여성의 성장에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고려불화에 종종 묘사되는 그물형 진주 머리장식의 현존유물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불화 특유의 상징적인 표현이었을 수 있으나, 고려의 높은 제작기술 수준을 고려하면 실제로 사용된 장식이되 생체분비물 성분으로 이루어진 진주가 시간이 지나 부식되었거나 진주를 켤 실이 삭아 형태 자체가 온전히 보존되지 못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2) 기타 장신구

(1) 기록에 나타난 고려 말 장신구를 통한 반야 장신구 분석

『박통사언해』하 89/12를 보면 “청옥과 백옥을 섞은 상등품 옥구슬 꿰미(靑白間串的上等玉珠兒)가 있소.... 이게 구운 것(燒子)이 아니고 무엇인가, 감히 옥(玉) 값을 받으려 하는가?”(Wang et al., 2012, p. 338)라는 상인과 고객의 언쟁이 나타난다. 소자(燒子)는 질 낮은 보석을 가열처리하여 색을 선명하게 만든 것으로, 고려 말에도 이러한 가공법이 자주 사용된 것이다. 이는 고급 보석에 비해 가격이 저렴해 일반인의 장신구에도 적합하다고 판단

되어, 반야의 장신구 자료로 참고하였다.

『노걸대』 103은 고려 상인이 한족 상인의 추천으로 고려에서 팔 물건들을 구입하는 장면을 다음처럼 전한다.

“...소목(蘇木) 100근(斤).... 향말분(香搽粉) 100첩(貼), 면연지(綿臙脂) 100근, 납연지(蠟臙脂) 100근, 분(粉) 100근.... 수침(繡針) 100과(裹), 조목소자(棗木梳子) 100개(箇), 황양목소자(黃楊木梳子) 100개, 대비자(大篋子) 100개, 기비자(鐵篋子) 100개, 사피침통(斜皮針筒) 100개.... 군도자(裙刀子) 10과, 오사아(五事兒) 10부(副).... 압구합포(壓口合鉢) 100개....”(Jeong, 2004, p. 408)

소목(蘇木)은 약재이지만 홍색 염색재이기도 하므로, “고려는 염색을 잘 하고 홍색(紅色)과 자색(紫色)이 더 기묘하다.”는 『계림지(鷄林志)』의 기록을 참고하여(Han, 1998, p. 94.) 반야의 의복에 진하지 않은 소목 염색을 반영하였다. 다른 품목들은 분과 연지 류, 굵은 나무빗과 불순물 제거용 참빗, 수바늘과 침통, 치마에 차는 여성용 단도, 다섯가지 날이 갖춰진 다용도 나이프로 보이는 오사아, 두루주머니 등으로 일반여성이 즐겨 사용할 만한 물건이어서, 반야의 복식소품으로 적용해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원말의 문인 양유정(楊維楨: A.D. 1296~1370)은 『원음(元音)』 12 무제(無題)에 “.... 고려인처럼 수화를 신고 공차기를 하네(繡靴踏鞠句驪樣)....”란 구절을 남겼다(Lee, 2011, p. 209). 양유정의 생존기간 안에 공민왕 재위기가 포함되므로, 공민왕 재위기에도 고려인들이 자수를 놓은 신발을 신은 채로 야외활동을 하는 풍속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현존유물을 통한 반야의 장신구 분석

다음은 반야가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현존유물 장신구를 분석한 것이다. 공민왕 재위기의 여성복식 문화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유물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① 투조(透彫) 장식과 부조(浮彫) 장식

현존하는 고려 금속 유물 중 가장 많은 유형은 투조 장식이다. 1999년 청주 명암동 고려 고분에서 발견된 은제 투조장식(〈Fig. 28〉)은 한 쌍으로 좌

우대칭형이며 연꽃과 원앙 문양으로 구성되었고 시신의 가슴부위에서 발견되어서 가슴에 장식했던 것으로 보인다(Cheongju National Museum[CNM], 2001, p. 132). Kim(2012)는 뒷면에 섬유질 흔적이 남은 것을 근거로 이를 의복용 장신구로 추정하였다.

대부분의 현존 투조장식은 이와 유사한 형태를 가졌으나 동제 또는 금속제이며, 국립 기메 동양박물관 소장품으로 크기가 2.1×3.1cm인 〈Fig. 29〉의 연화 잉어 투조장식처럼 비교적 작고 한 쌍이어서 ([NRICH], 1999, p. 201) 여미를 고정하는 단추 또는 고름 보강장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Lee(1999)은 국립 기메 동양박물관에 소장된 크기가 4.8×3.2cm인 금동제 초화문 장식(〈Fig. 30〉)을 비롯해 비교적 크고 단독형인 고려 투조장식을 ‘브로치형 장식’으로 추정했다. 이를 참고하면 단독 투조장식은 여성용 단령포처럼 넓은 포의 여미를 고정하는 장식으로, 작고 한쌍인 투조장식은 여밈단추 및 고름 보강장식으로 응용할 수 있다.

〈Fig. 31〉은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소장된 12-13세기의 고려유물(F1917.545)로 청동제 부조 구슬인데(Smithsonian, n.d.), 구멍 주위에 연화형 부조(浮彫)가 새겨져 있다. 형태와 재질을 보면 고려 말 일반인의 경식(頸飾), 부채 등의 소품 끈 장식, 또는 불교 장신구 재료였을 가능성이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은제타출화문 팔찌(〈Fig. 32〉)는 안쪽에서 밖을 향한 타출기법을 사용하여 타원문 안에 한 쌍의 새, 그 외부에 꽃덩굴을 표현했다. 표면이 밖으로 돌출되어서 팔찌 내부는 비어있으며 얇은 판을 안쪽에 덧대어 마무리했다. 김에는 이러한 방식으로 제작된 팔찌는 단순히 치장으로 착용했을 수도 있으나 제작 방식을 고려하면 팔찌 속에 다라니 경진이나 부적 등을 넣었을 가능성도 있음을 밝혔다(Kim, 2012).

② 경갑(經匣)

불교 경문을 넣어 지니던 경갑은 고려 말 불교문화와 관련된 주요 장신구이다. 공민왕 재위기에 불교문화가 융성했고 신돈의 신분이 승려였으므로, 경갑은 반야가 지녔을 가능성이 높은 장신구이다. 특히



〈Fig. 28〉 Openwork Ornaments of Lotus and Lovebirds, *Goryeo* (CNM, 2001, p. 204)



〈Fig. 29〉 Openwork Ornaments of Lotus and Carp, *Goryeo* (NRICH, 1999, p. 201)



〈Fig. 30〉 Openwork Ornament of Flowering Plant, *Goryeo* (NRICH, 1999, p. 204)



〈Fig. 31〉 Gilt Relief Bronze Bead, *Goryeo*. (Smissonian, n.d.)



〈Fig. 32〉 Silver Relief Bracelet, *Goryeo* (NMK, n.d.)

보스톤 박물관 소장품인 〈Fig. 33〉의 고려 금동동자 유희문경갑(金銅童子遊戲文經匣)은 11~12세기 유물로(NRICH, 2004), 뚜껑에 고리가 붙은 가방 형태로 제작되었다. 유물의 시대는 공민왕 재위기보다 앞서지만, 공민왕 대에 옛 고려풍습이 상당부분 회복되었고 경갑이 불교 장신구이며 여성 길상문인 동자(童子) 부조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반야의 경갑으로 응용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다.

③ 단도(短刀) 또는 군도자(裙刀子)

앞서 밝혔듯 『노걸대』 103을 보면, 고려상인이 판매용으로 구입한 물건 중에 실용품을 겸한 호신용품으로 생각되는 여성용 군도자가 있다. 그러나 불교법회에 참석하는 경우에 여성의 무기 착용이 허용되었는지는 의문이므로, 군도자는 반야의 일상복식에 착용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Fig. 34〉는 보스톤 박물관에 소장된 현존 유물의 예로서, 문양을 타출하여 나타낸 은제도금타출문장도집(銀製鍍金打出文長刀鞘)

이다. 몸체는 유선형이며, 연주문 형식의 테두리 안에 날개를 펼친 새 한쌍이 부조로 표현되었고 폐용이 가능하도록 윗부분에 고리가 있다.

④ 침통(針筒)

고려 말의 침통은 여성복식문화의 특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실용 장신구이다. 스미소니언 박물관의 12-13세기 고려 침통(1)(F1917.543a-b)(〈Fig. 35〉)은 부분적으로 도금된 은제이며, 여성 길상문인 덩굴을 움켜잡은 동자의 형상이 묘사되었다. 켈른 동아시아 박물관의 고려 침통(2)(No. C09.26)(〈Fig. 36〉)는 청동제이며 연화당초문이 새겨져 있다. 이 침통들의 형태는 고려 말의 여성문화, 복식문화, 불교문화를 시각적으로 강하게 드러내는 요소로 판단되어, 반야의 불교법회 성장 및 외출복에 부착할 장신구로 설정하였다.



〈Fig. 33〉 Sutra Case,
Goryeo
(NRICH, 2004, p. 208)



〈Fig. 34〉 Gilt Silver
Sheath Knife, Goryeo
(NRICH, 2004, p. 228)



〈Fig. 35〉 Needle Case(1),
Goryeo
(Smisonian, n.d.)



〈Fig. 36〉 Needle Case(2),
Goryeo
(NRICH, 2007-a, p. 101)

IV. 반야 복식의 고증요소

이상을 토대로 불교법회 겸용 성장 3가지와 외출복, 평상복으로 나누어 반야 복식의 고증요소를 정리하였다. 결과물은 비 귀족층이며 일정 수준의 부를 소유한 고려 말 일반여성의 복식 고증요소로도 활용될 수 있다.

첫번째 반야의 불교법회 겸용 성장차림은 일본 〈관경십육관변상도(觀經十六觀變相圖)〉를 참고한 넓은 연황색 단령포(團領袍)와 저고리, 치마, 부속물이며, 고려 특유의 비대칭 추마계(墜馬髻)가 조합되었다. 실용성을 위해 두번째 불교법회 겸용 성장은 이 단령포와도 함께 착용할 수 있게 구상하였다.

두 번째 불교법회 겸용 성장차림은 〈수월관음도〉의 여성공양인 복식과 Kim(2000)의 연구를 참고하여, 길이 100cm 전후인 교차여밈 흑라의(黑羅衣)와 치마 및 부속물로 구성하였다. 흑라의 대신 첫 번째 성장의 단령포 및 치마의 〈관경십육관변상도〉에 묘사된 설법을 듣던 여성들이 착용한 교차여밈의 활수포도 착용할 수 있다.

세번째 불교법회 겸용 성장차림은 앞의 두 가지보다 간소하며, 직배래 저고리, 치마, 표를 조합한 것이다. 표를 제외하면 평상복과 유사한 조합이지만 초, 라, 초금 등 당시의 부유층의 의료였을 가능성이 있는 직물을 부분적으로 사용하여 구분을 두도록 한다.

네 번째는 외출복으로, 홍색 부인용 담호를 평상

예복 위에 입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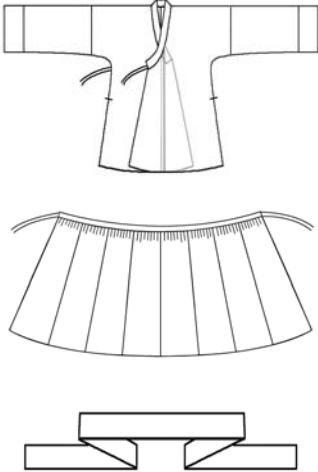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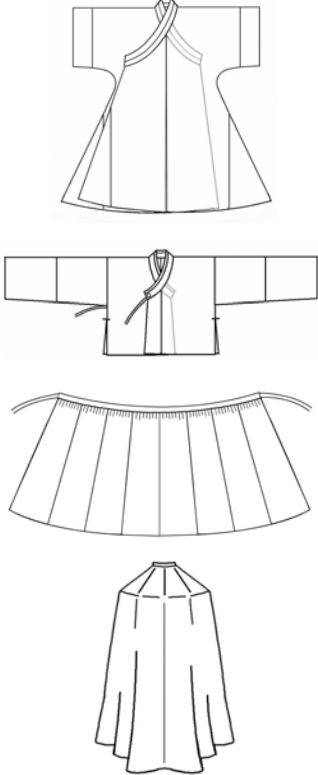
마지막인 평상복은 고려 말 일반여성들의 평상에 복이었던 반비, 장저고리, 치마에 무늬 없는 주, 저 평직을 조합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국산 면은 보편화되기 이전이었으므로 추동용 저고리와 치마의 보은용 재료로 일부 사용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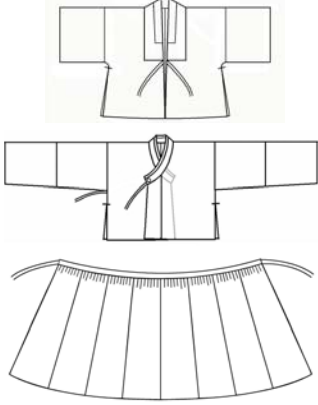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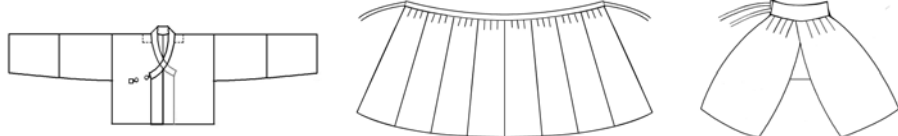
반야의 본래 신분은 고려하여 은제 장신구와 초, 라, 금직, 문저 등은 성장 차림에 사용하며, 금직은 질 낮은 초금으로 한정하여 성장의 선두름 및 부분 장식에만 적용하였다. 시대특성을 강조하여 고려불화와 기록에 묘사된 세백저(細白紵), 문저, 흑라, 초, 능, 라, 초금단자, 모시, 명주와 함께 사계화와 탐자 문양, 연황색, 연청색, 아청색, 소홍색, 남색, 금갈색, 도홍색, 육홍색을 반야복식 고증의 중심요소로 설정하도록 한다.

반야의 생존시기는 공민왕 재위기로 원(元)의 영향을 극복하던 시기이다. 그러나 일부 원 복식과 문양은 이미 당시의 일반복식 유행사조에 흡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원(元)의 영향을 받은 듯한 탐자 직물 불복장도 다수 존재하나 이는 최고급 공양물에 속하므로, 반야의 성장용 치마, 선두름, 소품, 허리띠 등 일부에만 적용하도록 한다. 일본 대덕사에 소장된 〈수월관음도〉의 여성 공양인의 치마에 여러 색상의 화문이 있어 금(錦) 치마로 추정되므로, 성장차림에만 이를 참고하였다.

<Table 7> Investigated Costume Sources of Banya

Use	Costume & fabric		Hair	Accessory	Illustration of Outerwear
Formal dress (盛裝) 1: Buddhist service/etc.	<p><i>Dallyeongpo</i> (團領袍), <i>Jeogori</i> skirt, underskirt, underpants, fabric belt, embroidered flat shoes(繡鞋)</p>	<p><i>Cho</i>(絹), <i>Ra</i>(羅), <i>Guem</i>(錦), <i>Neung</i>(綾), <i>Dan</i>(緞), patterned ramie(紋紵), detailed white ramie(細白紵), low grade golden brocade (草金段子), <i>Tapja</i>(塔子): upper/part</p>	<p>hair down on the right & hair up on the left (墜馬髻).</p>	<p>forked hairpin(釵), silver comb, silver bracelet, bronze <i>Binyea</i>, bronze openwork ornament (broach), bronze sutra case with boy pattern, earring & necklace (jade/heated gemstone/gilt bronze beads), silver or bronze needle case, pouch</p>	
		<p>light pink- colored thin silk(小紅薄絹): lining</p>			
Formal dress (盛裝) 2: Buddhist service/etc.	<p>long <i>Jeogori</i> (or long sleeved <i>Po</i>) with black <i>Ra</i>, skirt, narrow straight sleeved under <i>Jeogori</i> (筒袖單衫), underskirt, underpants, fabric belt, embroidered flat shoes(繡鞋)</p>	<p><i>Cho</i>(絹), <i>Ra</i>(羅), <i>Guem</i>(錦), <i>Neung</i>(綾), <i>Dan</i>(緞), patterned ramie(紋紵), detailed white ramie(細白紵), low grade golden brocade (草金段子), <i>Tapja</i>(塔子): upper</p>	<p>hair up in a chignon on the top.</p>	<p>forked hairpin(釵), silver comb, silver bracelet, bronze <i>Binyea</i>, bronze openwork ornament (for button), bronze sutra case with boy pattern, earring & necklace (jade/heated gemstone/gilt bronze beads), silver or bronze needle case, pouch</p>	
		<p>light pink- colored thin silk(小紅薄絹), <i>Ju</i>(紬), ramie(紵): lining</p>			

<p>Formal dress (盛裝) 3: Buddhist service/etc.</p>	<p>long <i>Jeogori</i> skirt, under <i>Jeogori</i>, underskirt, underpants, embroidered flat shoes (繡鞋), long scarf(袂)</p>	<p><i>Cho</i>(絹), <i>Ra</i>(羅), <i>Neung</i>(綾), <i>Dan</i>(緞), patterned ramie(紋紵), detailed white ramie(細白紵), low grade golden brocade(草金段子), <i>Tapja</i>(塔子): upper</p>	<p>hair up in a chignon on the top or nape + small coronet</p>	<p>forked hairpin(釵), silver comb, silver bracelet, bronze <i>Binyea</i>, bronze openwork ornament (for button), bronze sutra case with boy pattern, earring & necklace (jade/heated gemstone/gilt bronze beads), silver or bronze needle case, pouch</p>	
<p>Street wear</p>	<p>Women's <i>Dapho</i> (婦人搭忽), long <i>Jeogori</i> skirt, under <i>Jeogori</i>, underskirt, underpants, embroidered flat shoes (繡鞋), black beil(蒙首)</p>	<p><i>Cho</i>(絹), <i>Ra</i>(羅), <i>Ju</i>(紬), ramie: upper</p>	<p>hair down on the right & hair up on the left/ hair up in a chignon on the top or nape</p>	<p>forked hairpin(釵), bronze <i>Binyea</i>, bronze openwork ornament (for button), earring & necklace (jade/heated gemstone/gilt bronze beads), bronze needle case, side knife for women(裙刀子), knife with five blade(五事兒), pouch</p>	 <p>peach red & meat red color in women's <i>Dapho</i></p>
		<p>light pink-colored thin silk(小紅薄絹): lining</p>	<p>coarse teeth comb & fine tooth comb: tool</p>		
		<p>light pink-colored thin silk(小紅薄絹), <i>Ju</i>(紬), ramie, cotton: lining</p>			
		<p>black <i>Ra</i>(羅): beil</p>			

Day wear	<i>Banbi</i> (半臂), long <i>Jeogori</i> skirt, under <i>Jeogori</i> underskirt, underpants, flat shoes(鞋)	<i>Ju</i> (紬), ramie, imported cotton: upper	hair up in a chignon on the top or nape	hairpin(釵), bronze <i>Binyea</i> , earring & necklace (jade/heated gemstone/gilt bronze beads), bronze needle case, side knife for women(裙刀子), knife with five blade(五事兒), pouch	 <p>focusing on plain fabric (無紋織)</p>
Illustration of under wear					

*Pattern of four season flower(四季花) in upper of formal dress and *Guem*(錦) skirt.

*Sappan wood can be used as dyes in red clothing.

*Upper focused on the low chroma red, golden tea-brown, navy.

*Another light color can be used in lining.

*Use small button knot or small tie closure at opening part.

*Embroidery is laid in flat shoes(鞋) for formal dress(盛裝) and streetwear.

(Illustration by author)

<Table 7>은 반야복식의 고증요소를 정리한 것이다. 도식화는 고려불화와 명 초기의 유물 및 Kim(2000)과 Park(2009)의 연구에 나타난 해인사, 온양박물관, 수덕사, 보광사의 유물 및 형태를 참고하여 제작하였다. 그림이 부착된 고려 불복장 유물은 극소수여서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나, 작은 여밈부속을 대응품으로 사용할 수 있다.

『박통사』와 『노걸대』에 묘사된 작은 여밈부속, 가열처리 보석, 소목, 오사아와 군도자, 두루주머니, ‘수놓은 고려 해’를 적용하고, 반원형 장식빚, 꽃가지형 비녀, 투조 장식, 경갑, 동자문 침통, 고리 달린 단도, 투조 구슬을 고증에 반영하여 시대적 특징을 강조하였다. 반야의 신분 자체는 낮으므로 은제 장신구는 불교법회 성장으로 한정하였고, 청동제 장신구는 성

장과 외출복, 일상복에 모두 적용하여 구분을 두었다.

위에서 밝힌 반야 복식의 고증요소는 불교국가라는 시대적 배경, 공민왕의 후계자의 모친이며 신돈의 관계자임을 표현할 수 있는 불교관련 장신구와 여성 길상문양, 고려 말에 일반여성이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직물과 의료가 조합된 결과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고려 말의 실존여성인물 중 역사적 인지도에 비하여 관련자료가 적은 반야(般若)의 복식 고증요소를 시대에 맞게 고찰하기 위한 것이다. 반야는 신돈의 비첩이지만 비공식적인 공민왕의 후계자의 모친으로 왕의 후원을 받았으므로, 비 귀족층 일

반여성에 준하는 복식요소를 고려하였다. 공민왕 재위기의 복식문화와 고려불화, 『박통사』, 『노걸대』, 고려복식유물과 보존상태가 양호한 해외 고려유물을 분석하여 적용하였다.

1. 첫번째 불교법회 검용 성장은 『고려도경』에도 기록된 비대칭 주마계(墜馬髻)와 사이후쿠지의 <관경십육관변상도>를 참고한 단령포, 저고리, 치마, 속옷, 장신구로 구성되었다. 초, 라, 금(錦), 능, 문저, 세백저, 초금단자를 겹감으로, 소홍박견을 안감으로 설정하였으나, 반야의 본래 신분이 낮아 고가의 직물은 부분적으로 적용하였다.

2. 두번째 불교법회 검용 성장은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의 <수월관음도>를 참고한 장저고리 또는 포 형태의 흑라의(黑羅衣)와 치마, 속옷, 장신구로 구성하였다. 장저고리는 치은지의 <관경십육관변상도>에 나타난 활수포로 대체할 수 있으며, 재료는 첫번째 불교법회 검용 성장의 재료와 같다.

3. 세번째 불교법회 검용 성장은 치은지의 <관경십육관변상도>를 참고한 직배래 저고리, 치마에 표(裱)를 조합한 것이다. 정교한 의료를 사용하여 평상복과 구분을 두었다.

4. 일상적인 외출복은 홍색 계열의 부인용 답호와 흑라 몽수를 평상복 위에 착용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성장의 의료보다 등급이 낮은 라, 주, 저, 견을 조합하였다.

5. 평상복은 반비, 장저고리, 치마에 무늬 없는 주, 저 평직을 적용하였다. 국산 면은 보편화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수입 면을 일부분에만 적용하였다.

이와 함께 사계화 문양과 탐자 문양, 연청색, 아청색, 소홍색, 남색, 금갈색, 도홍색, 육홍색, 고려식 수혜(繡鞋)를 반야복식 고증의 중심요소로 설정하였다. 시대적 특성이 잘 드러난 해외 고려유물을 분석하여 반원형 장식빚, 꽃가지형 비녀, 투조 장식, 경감, 동자문 침통, 단도 등을 조합했으며 은제와 청동제의 구분을 두었다. 또한 『박통사』와 『노걸대』의 작은 여밈부속, 가열처리 보석, 소목, 빚, 오사아, 군도자, 두루주머니 등 고려 말 일반여성에게 적합한 소품을 적용하여 시대적 특징을 강조하였다.

반야 복식의 고증요소는 고려 말 불교 증흥기의

여성, 승려 신돈의 관계자, 비첩이었으나 공민왕의 비호를 받던 여성임을 표현하는 요소들이 조합된 결과이다. 고려복식 연구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내에 소장된 유물과 문헌이 적어 특정인물의 복식을 세심하게 고증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해외소장 유물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도 다방면의 자료를 통한 고증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Reference

- Cheongju National Museum. (2001). *Ruins of Cheongju Myungam-dong II* [청주 명암동유적 II]. Cheongju, Republic of Korea: Yemac.
- Choi, J. (2011). A study on the costume of ball jointed dolls as cultural product with application of ladies' costume culture from late Goryeo to early Joseo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2(9), 3815-3826. doi:10.5762/KAIS.2011.12.9.3815
- Choi, J. (2013). A study on fashion souvenir ornament design for female dolls with the application of relic and painting motifs in the late Goryeo period: Focus on Investigated Design and Costume Coordina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7(5), 691-703. doi:10.5850/JKSC.2013.37.5.691
- Choi, J. (2014). The relationship on the investigated costume design with use of Korean textile with golden thread from late Goryeo period to early Joseon Period. *Journal of Korean Traditional Costume*, 17(2), 105-123.
- Chun, H. S. & Ahn, H. J. (2010). A study on the records of costume in the period of king Gongmin of Goryeo. *Journal of Korean Traditional Costume*, 13(1), 157-174.
- Classical laboratory of Dong-a University. (1967). *Translated and annotated Goryeosa 3* [역주 고려사 3]. Busan, Republic of Korea: Dong-a University Press.
- Gilt Relief bronze bead, Goryeo (n.d.). *Smsonian*. Retrieved from http://www.asia.si.edu/collections/edan/object.cfm?q=fsg_F1917.537
- Han, C. Y. (1998). *Translated Haedong-yeoksa III* [국역 해동역사 III](1st ed). (Jeong, S. Y., Trans.). Seoul, Republic of Korea: [ITKC]. (Original work published 1823)
- Han, C. Y. (2001). *Translated Haedong-yeoksa IV* [국역 해동역사 IV](1st ed). (Jeong, S. Y., Trans.). Seoul, Republic of Korea: [ITKC]. (Original work published 1823)
- Jeong, I. J. (2006). *Translated Goryeosa 28* [국역 고려사

- 28](1st ed.). (Seokdang Academy of Dong-a University, Trans.). Busan: Republic of Korea, Minjokmunhwa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451)
- Jeong, G. (2004). *Original Nogeoldae* [원본 노걸대]. Paju, Republic of Korea: Kimyoungsa.
- Kikutake, J. & Chung, W. T. (Ed.) (1997). *The Buddhist painting of Koryo dynasty*. Seoul, Republic of Korea: Sigongsa.
- Kim, M. J. (2012). A study on the ornaments in Goryeo dynasty. *Journal of Korean Traditional Costume*, 15(3), 5-21.
- Kim, M. S. (2000). *The changes of the costume of Koryo dynasty during the period of Mongol dominan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 Kim, J. S. (2004). *New edition: Goryeosa-jeolyo II* [신편 고려사절요 II]. (Institute for the Translation of Korean Classics[ITKC], Trans.). Seoul, Republic of Korea: Shinseowon, (Original work published 1452)
- Kim, Y. M. & Lee, S. H. (2012). A study on reappearance of the costume of Yoo Bang-Taek in the late Goryeo dynasty. *Journal of Korean Traditional Costume*, 5(3), pp. 121-133.
- Kouymjian, D. (2006). Chinese motifs in thirteenth-century Armenian art: The Mongol connection. *Islamic History and civilization*, 64, 303-324.
- Lee, H. (2006, April 2). Seo, Ji-hae appears as pregnant *Banya*. *Newsen*. Retrieved from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0604020819511001
- Lee, H. K. (1999). Metalwork. In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Eds.), *Korean cultural properties of the Guimet national museum of Asian arts: France*. (1st ed.). (pp. 200-219). Daejeon, Republic of Korea: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 Lee, I. (2011). *Sungho-jeonjip* [성호전집](1st ed.). (Park, H. S. & Kim, S. A., Trans.). Seoul, Republic of Korea: ITKC. (Original work published 1774)
- Lee, J. K. (2007). *Kasan encyclopaedia of Buddhism 9* [가산 불교대사람 9]. Seoul, Republic of Korea: Kasan Institute of Buddhist Culture Press.
- Lee, J. M. (2011). Korean women as imperial consorts in China and Gongci. *Gojeon-Munhak-Yeongu* [고전 문학연구], 40(0), 197-230.
- Lee, S. Y. (2005). *A Study on the objects and Textile of Buddhist Statue Enshrinem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guk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 Mural tomb of Park-ik in Milyang (n.d.).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Retrieved from 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search_photo_list.jsp?VdkVgwKey=13%2C04590000%2C38&query
- Musée des Arts asiatiques & Musée national de la Soie (2005). *Human in heaven* [Du ciel à la terre/天上人間]. Hangzhou, China: Zhejiang silk museum, 68-69.
-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n.d.). Goryeosa 72 ji 26[고려사 72 지 26], Give the clothes, Change materials of Jobok. Retrieved from http://db.history.go.kr/KOREA/item/level.do?itemId=kr&bookId=志#detail/kr_072_0010_00_20_0070_0020
- National Museum of Korea. (2010). *Masterpieces of Goryeo Buddhist Painting* [고려불화대전]. Seoul, Republic of Korea: BA Design.
-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1999). *Korean cultural properties of the Guimet national museum of Asian arts, France* (1st ed.). Daejeon, Republic of Korea: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2004). *Korean art collection at the museum of fine arts, Boston* (1st ed.). Daejeon, Republic of Korea: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2007-a). *Korean art collection in the museum of east Asian art in Cologne, Germany* (1st ed.). Daejeon, Republic of Korea: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2007-b). *Korean cultural properties in the Ogura collection of Tokyo national museum, Japan* (2nd ed.). Daejeon, Republic of Korea: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 Needle case(1), Goryeo (n.d.). *Smisionian*. Retrieved from http://www.asia.si.edu/collections/edan/object.cfm?q=fsq_F1917.543a-b
- Ok, M. S., Park, O. L., & Lee, J. Y. (2008). The characteristics of Seon(禪) as expressed in the costumes of worldly figures illustrated in Koryo buddhist painting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58(10), 52-64.
- Park, Y. M. (2009). Characteristics of Jeogori found in the Gwan-eum Bodhisattva statue in Bogwang temple of Goryeo dynast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59(10), 1-9.
- Park, Y. W. (2013). *Translated and annotated Goryeosa Yeobokji* [고려사 여복지 역주]. Seoul, Republic of Korea: Kyungin Press.
- SBS TV (n.d.). Wallpaper: <Daefungsu>. Retrieved from http://wizard2.sbs.co.kr/sw11/te_mplate/swtp_wallpaper.jsp?vodId=V0000369436&vProgId=1000829&vMenuId=1018060
- Seo, G. (2005). *Sunhwa-bongsa-Goryeo-dokyung* [선화봉사고려도경]. (Cho, D. W., Kim, D. S., Lee, K. L., & Lee, S. G. Trans.). Seoul, Republic of Korea: Hwangso-jari. (Original work published 1124)
- Silver Relief Bracelet, Goryeo (n.d.). *National Museum of Korea*. Retrieved from <http://www.museum.go.kr/program/relic/relicDetail.jsp?menuID=001005001003>

&relicID=8183&relicDetailID=19357&keyWord=%
ED%8C%94%EC%B0%8C&searchSelect=NAME&
langCodeCon=LC1¤tPage=1&pageSize=12
&back=relicSearchList

- Wang, H., Yu, J. W., & Choi, J. Y. (2012). *Translated and annotated Parktongsa-unhae* [역주 박통사언해]. Seoul, Republic of Korea: Hakgobang.
- Yun, S. G. & Lee, G. B. (2012, November 16). <Daefungsu> Lee, Yun-ji said, "Casting as *Banya*, maybe it's because of naively honest". *Starnews*. Retrieved from <http://star.mt.co.kr/view/stview.php?no=2012111612545904801&type=1&outlink=1>